

# EU 농업전망 2024-2035

김 두 휘\*

## 1. 개요

「EU 농업전망 2024-2035」 보고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 산하 농업총국(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DG AGRI)이 매년 발간하는 대표적인 중장기 농업전망 자료로, EU 농업 부문 전반의 생산, 소비, 무역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향후 10년간(2024~2035) EU 농업 부문이 직면하게 될 구조적 변화와 시장 여건을 포괄적으로 전망하며, 특히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전략계획, 환경규제, 소비자 트렌드 변화, 기후 및 국제 무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의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EU 농업의 주요 부문에 대한 중기 전망을 품목별로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작물(Arable Crops)인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소비·무역 구조를 다루며, 제3장에서는 원유 및 유제품(Milk and Dairy Products)의 공급기반 변화, 가공 동향, 소비 구조 및 수출경쟁력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축산물(Meat Products) 부문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양·염소고기로 구분하여 생산성과 소비 트렌드, 수출입 변화 전망 등을 제시하며, 제5장 특용작물(Specialised Crops)에서는 과일·채소, 와인, 올리브유, 식용 올리브 등 고부가가치 품목군의 시장 전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마지막 제6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분석된 전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업 및 농식품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dewey1157@krei.re.kr).

본고는 「EU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2024-2035」 보고서 중 제2장(Arable Crops)과 제3장(Milk and Dairy Products), 제4장(Meat Products), 제6장(Specialised Crops)을 번역·정리한 것임.

## 2. 전작물(Arable Crops)<sup>1)</sup>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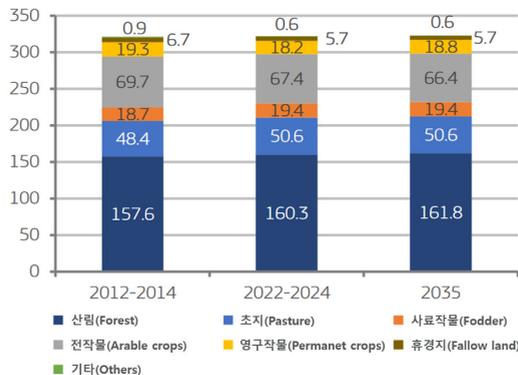
### 2.1. 경지 이용(Land Use)

#### □ 경지면적 소폭 감소 전망

EU의 농지 및 산림 면적은 2035년까지 약 3억 2,320만 ha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도시화, 교통, 재생에너지 개발 등 비농업 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토지 이용 유형에는 변화가 예상되며, 전작물 재배면적은 이상기후, 수자원 부족, 농자재·에너지 가격 변동, 사료·바이오연료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1.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지, 사료작물지, 휴경지는 CAP의 유연한 유지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비록 휴경지 의무는 완화되나, 두과 피복작물 등 농생태학적 경작 방식에 대한 CAP의 지원이 이를 보완한다. 영구작물<sup>2)</sup> 재배면적은 견과류 및 일부 과일류 수요 증가와 정책 지원으로 3.6%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림 면적도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sup>3)</sup>을 중심으로 한 조림·재조림 확대 정책에 따라 0.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EU의 농지 및 산림 면적

단위: 백만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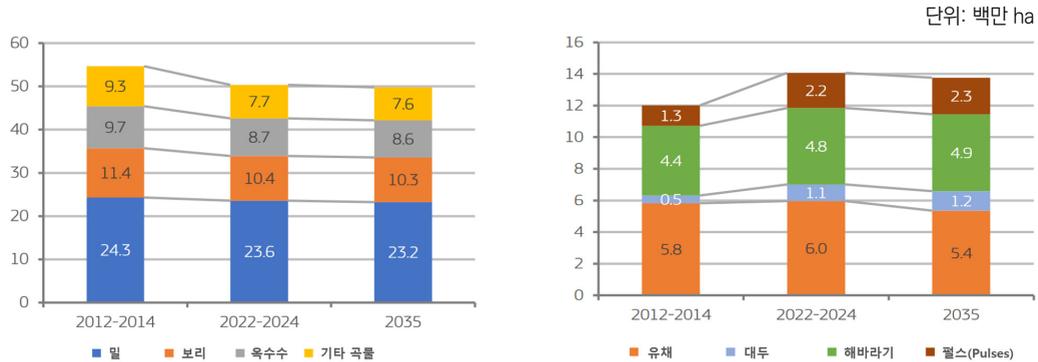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4.

- 1) 일반적으로 윤작 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갈거나 경작하는 작물로 곡물(보통밀, 듀럼밀,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및 기타 곡물), 유지종자 및 단백질 작물(유채, 해바라기씨, 대두 및 두류), 가공품(설탕, 식물성 유지, 단백질박)을 포함함(Eurostat, 2023).
- 2) 포도밭, 과수, 올리브나무 등과 같이, 한 번 식재한 이후 여러 해 동안 동일한 토지에서 재배되며 매 수확 후 재식재가 필요 없는 작물을 의미함(Eurostat, 2023).
- 3) 2030년까지 EU 영토 및 해양의 최소 20% 복원 및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 복원 등 유럽연합의 토지·해양 전체를 대상으로 생태계 서식지 중 복원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 최초의 EU 차원의 법률.

### □ 대두 및 두류 재배면적 증가 전망

EU의 곡물 재배면적은 2022~2024년 평균 5,030만 ha에서 2035년 4,980만 ha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료 수요 둔화, 투입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 수자원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곡물 가운데 밀과 옥수수는 각각 약 1.4%, 기타 곡물(호밀·귀리·수수·트리티케일 등)은 약 1.2%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보리는 0.1% 수준의 미미한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일부 곡물, 특히 옥수수의 재배지역이 남부에서 북부 EU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유지종자와 두류는 전반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식물성 단백질 수요 확대와 EU의 단백질 작물 생산 장려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두류와 대두는 각각 4.5%, 9.1% 증가하여 2035년에는 230만 ha, 120만 ha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바라기 재배면적도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채는 바이오연료 수요 감소로 인해 600만 ha에서 540만 ha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림 2〉 EU의 곡물 및 유지류, 펄스 재배면적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4.

## 2.2. 곡물(Cereals)

### □ 생산 단수 소폭 증가하여 안정세 유지, 옥수수·보리가 생산 증가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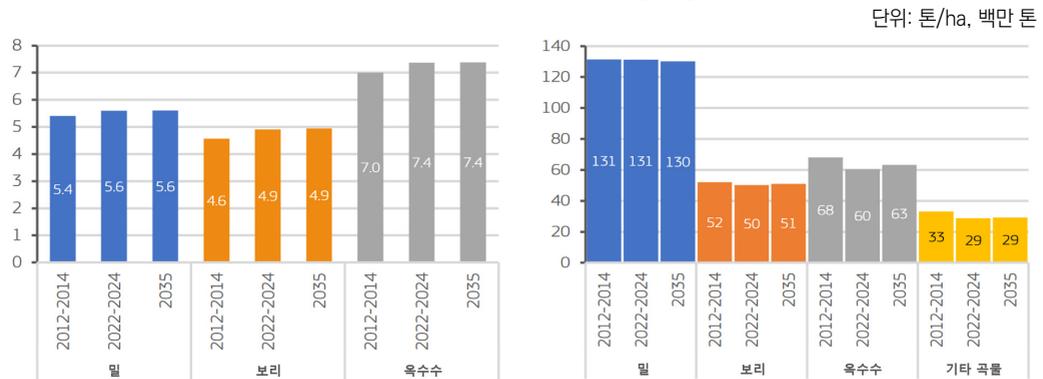
EU의 곡물 생산 단수는 2022~2024년 평균 대비 2035년까지 소폭 증가하며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이상기후 빈도 증가, 투입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생산

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나, 이는 정밀농업, 재생농업, 신품종 보급 등 지속가능한 집약농업 확산과 같은 긍정적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2022~2024년 평균 대비 2035년의 주요 품목별 변화로 밀과 옥수수 생산 단수가 각각 0.2% 증가하고, 이례적으로 낮은 기준년도 생산 단수를 반영한 보리는 0.75%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EU-13과 EU-14<sup>4)</sup> 간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며, 전체적인 생산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는 회원국 간 기술 보급과 제도 개선이 생산성 균형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U의 전체 곡물 생산량은 2035년까지 2억 7,3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2~2024년 평균 대비 1.1% 증가한 수치이다. 생산이 증가하는 주요 품목은 옥수수와 보리로, 각각 6,320만 톤, 5,10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밀 생산량은 2024년의 일시적인 감소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생산 확대는 작물별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생산 단수의 개선으로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질밀은 같은 기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질밀 생산이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EU의 곡물 단위 및 생산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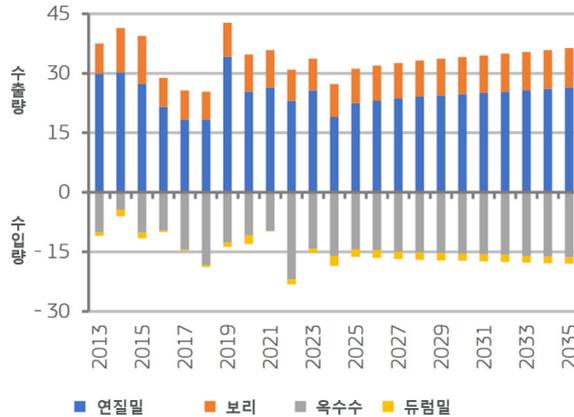
4) EU-13은 2004년 이후 유럽연합에 가입한 13개 신흥 회원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를 의미하며, EU-14는 EU-27에서 EU-13을 제외한 기존 14개 회원국을 의미함.

□ 사료용 수요 감소 및 교역 확대

2035년 EU의 사료용 곡물 소비량은 1억 5,230만 톤으로, 2022~2024년 평균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식용 곡물 소비는 약 6,020만 톤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역 측면에서는 밀, 보리,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총교역량이 2035년까지 5,4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준 기간 대비 9.5% 증가한 수치다. EU의 높은 수출경쟁력이 지속되면서, 연질밀과 보리는 각각 3,060만 톤, 1,120만 톤의 순수출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EU의 곡물 무역량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5.

2.3. 유지종자 및 단백질작물(Oilseeds and Protein Cr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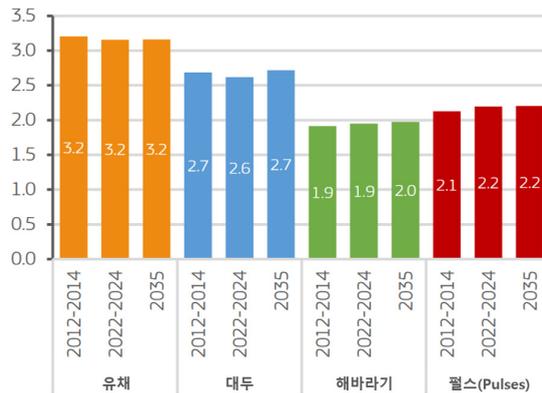
□ 기후변화와 투입재 사용 감소에도 생산단수 안정세 유지

EU의 유채와 대두의 단수는 감소 후 증가, 해바라기와 두류(펄스)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2022~2024년 평균 생산단수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의 대두, 해바라기, 유채, 두류(펄스) 단수 증가율은 각각 0.1%, 3.9%, 1.4%,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여건 악화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투입재 사용 제한, 특히 유채에 대한 식물 보호제인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s)<sup>5)</sup> 사용 제

약 등이 생산성 증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밀농업의 확산과 토양 건강 개선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의 채택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식물 보호 물질의 기술적 혁신과 EU 회원국 간 생산 단수 격차 축소는 대두, 해바라기, 유채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5〉 EU의 유지종자 및 단백질 작물 생산단수

단위: 톤/ha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6.

## □ 두류 및 대두 생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2035년까지 EU의 유지종자 및 단백질 작물 생산량은 2022~2024년 평균 대비 2.1% 증가한 3,49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와 EU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단백질 작물 생산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두류 수요의 지속적 확대와 대두 재배면적 증가가 생산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 생산량은 GM-free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기준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두류는 9.9% 증가해 49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바라기 씨는 1% 증가한 96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유채 생산량은 바이오연료 수요 감소로 1,880만 톤에서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광범위한 살충제 계열로, 사탕무 재배 시 주요 해충인 진딧물(Aphids) 방제를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야생 꿀벌, 벌떼, 기타 수분 매개 곤충에 치명적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며 EU는 2018년 야외 사용을 금지함.

〈그림 6〉 EU의 유지종자 및 단백질작물 생산량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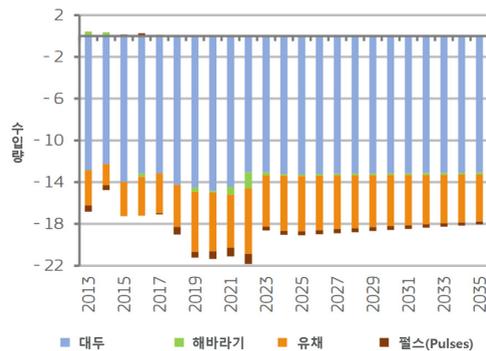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6.

### □ 유지종자 및 단백질작물 수입 감소 전망

EU는 2035년까지도 유지종자 및 단백질 작물의 순수입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생산의 증가와 수요 둔화에 따라 수입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유지종자의 순수입량은 2035년까지 2,030만 톤으로, 2022~2024년 평균 대비 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류 수입량 역시 같은 기간 27.7% 감소한 9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 내 두류의 식용 소비는 기준 기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소비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류의 주요 용도는 여전히 사료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EU의 유지종자 무역량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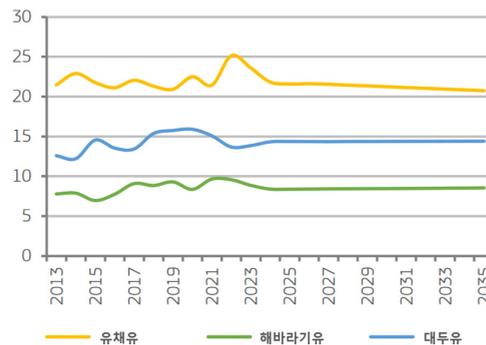
## 2.4. 유지박 및 식물성 유지(Oilmeals and Vegetable Oils)

### □ 사료·바이오연료 수요 감소에 따른 유지종자 압착 감소

유지종자 압착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인 유박과 식용·사료·공업용으로 활용되는 식물성 유지를 생산하는 핵심 공정이다. EU의 유지종자 압착량은 2035년까지 4,370만 톤으로, 2022~2024년 평균 대비 6% 감소할 전망이다. 기준 기간 중 압착량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료 및 바이오연료 수요 둔화에 따른 구조 변화로 해석된다. 유채와 해바라기씨의 압착량은 각각 12%, 4.5% 감소한 2,070만 톤, 850만 톤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두 압착량은 3.2% 증가한 1,440만 톤으로, 전체 감소폭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지종자 수입 감소는 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EU 내 압착 생산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8〉 EU의 유지종자 압착량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7.

### □ 식용 사용량 안정세이나 바이오연료용 감소세, 유지박 사료용 사용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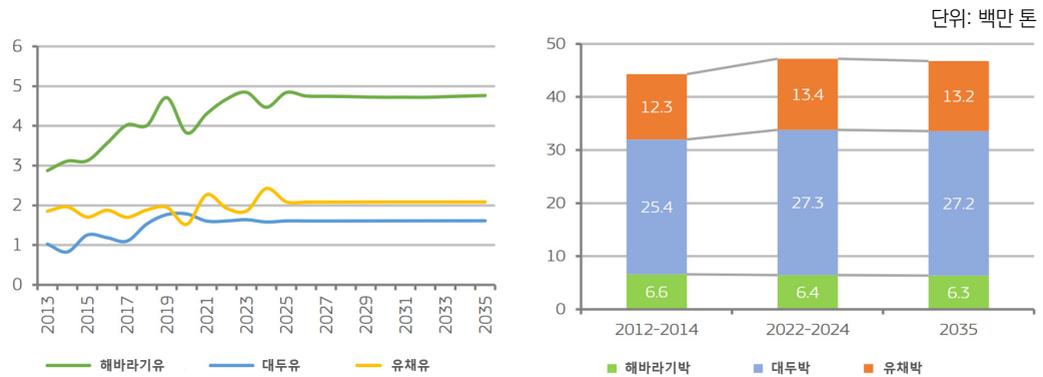
2035년까지 EU의 식물성 유지 총 사용량은 2022~2024년 평균 2,140만 톤에서 약 1,740만 톤으로 줄어들어, 약 19%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주로 바이오연료용 수요가 35.6%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팜유와 유채유의 바이오연료용 사용량이 각각 68.6%,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식물성 유지 소비의 약 57%를 차지하는 식용 수요는 안정

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용 수요에서는 해바라기유가 2.2% 증가하고, 유채유와 대두유도 각각 0.7%, 0.2%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팜유의 식용 사용량은 4.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5년 EU의 유지박 사용량은 4,680만 톤으로, 2022~2024년 평균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축 사육 두수 감소뿐 아니라, 축종 개량 기술의 발달과 유기 축산의 확산으로 인해 고단백 사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데 따른 현상이다.

품목별로는 해바라기박과 유채박의 사용량이 각각 1.6%,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두박은 0.5%의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두박이 여전히 사료용 유지박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9〉 EU의 유지유 식용 사용량 및 유지박 사료용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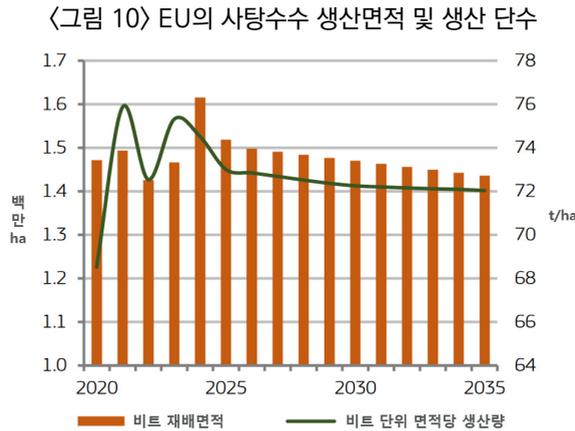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7.

## 2.5. 설탕(Sugar)

### □ 가격 하락으로 사탕무 재배면적 압력, 설탕 생산 제한 전망

2023년 설탕 가격 급등에 힘입어 EU의 사탕무 재배면적은 2024/25년 160만 ha로 최근 6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가격 하락과 타 작물과의 경쟁 심화로 2035년에는 약 144만 ha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상기후 빈도 증가와 식물 보호제 사용 제한도 생산 단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지된 식물보호제(네오니코티노이드) 대체 물질이 도입될 경우 생산 단수 감소는 일부 완화될 수 있으며, 평균 생산 단수는 ha

당 72톤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EU의 설탕 생산량은 2022~2024년 평균 1,540만 톤에서 2035년에는 1,530만 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소글루코스<sup>6)</sup> 생산은 식품 수요 감소와 대체 감미료 경쟁에 따라 약 50만 톤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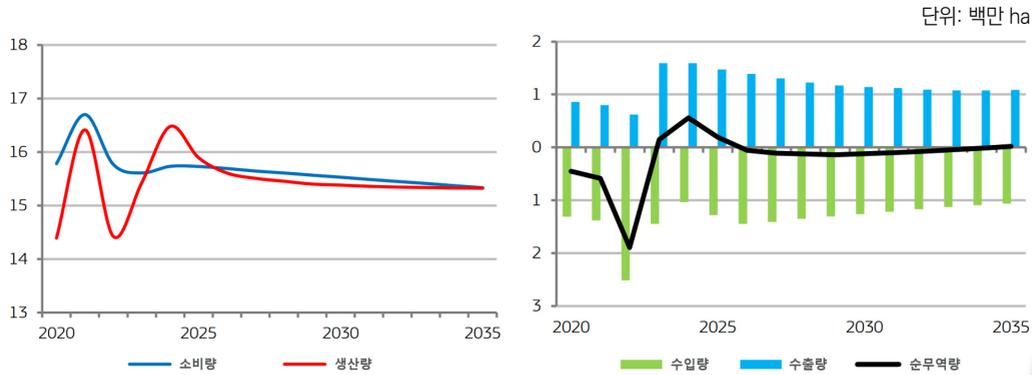
### □ 소비자 선호 변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교역은 균형 상태 유지

EU의 설탕 소비는 고당도 식품을 지양하는 저당 식단 선호 확산과 인구 감소, 1인당 소비 감소로 인해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추세는 전망 기간에도 이어져 2035년에는 기준 기간 대비 2.2% 감소한 1,5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할당제 폐지 이후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던 EU는 최근 생산 회복으로 무역수지를 균형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 전망 기간 동안 설탕 수출은 2023/24년의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도 줄어들어 2035년경에는 연간 약 10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6) 액상 형태의 고과당 시럽.

〈그림 11〉 EU의 설탕 생산량·소비량 및 무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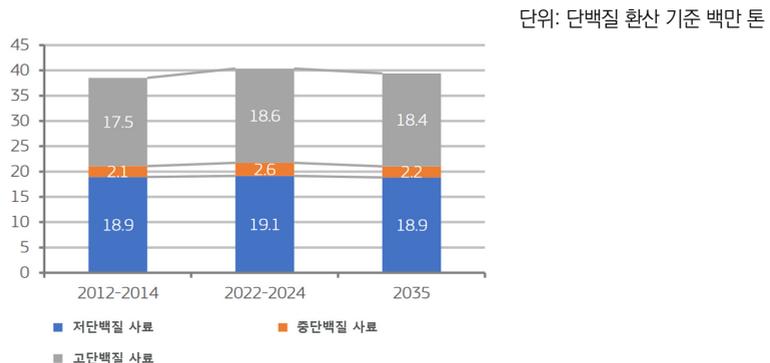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8.

## 2.6. 사료(Feed)

### □ 효율성 증가에 따른 사료 수요 감소

2035년까지 EU의 동물사료 수요는 단백질 기준으로 2022~2024년 평균 대비 약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생산량 감소, 우유 생산 증가세 둔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가금류 및 계란 생산의 확대는 이러한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축 유전 형질 개선과 사료 효율성, 정밀 급여 기술의 발전으로 소와 돼지를 중심으로 한 사료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느리게 자라는 닭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가금류 사료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2〉 EU의 사료 총수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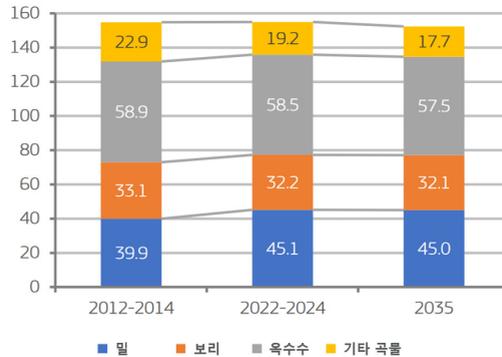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9.

## □ 중단백 사료 사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전망

2035년까지 EU의 단백질 사료 수요는 유형별로 상이한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중단백질 사료(옥수수 글루텐, DDGS, 유청분말 등)는 식용용 두류 수요 증가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기준 대비 15.7% 감소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의 부산물인 저단백질 사료의 수요는 곡물 수요 감소로 1.5% 감소할 전망이며, 품목별로는 귀리·호밀 7.7%, 옥수수 1.7% 감소가 예상된다. 고단백질 사료(유지박, 어분, 탈지분유 등)는 환경 및 기후 인식 확산과 수입 대두박 우려로 1.1%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EU의 사료용 곡물 총사용량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29.

## 3. 원유 및 유제품(Milk and Dairy Products)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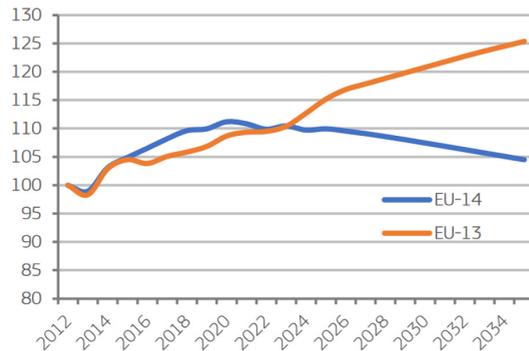
### 3.1. 원유(Milk)

#### □ 낙농우 사육 두수 감소에 따른 EU 원유 공급 기반 제약

지난 10년간 EU의 원유 납유량은 연평균 0.9% 증가하며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유지해왔다. 이는 낙농 생산성 향상 덕분으로, EU 유제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낙농우 사육 두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생산 증가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량 증가로 상쇄되던 구조적 제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EU 낙농 부문은 전

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납유량은 연평균 0.2%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우유 고형분 공급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U 내 원유 생산은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는 생산 증가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은 생산성 개선 여력이 제한되고,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향후 생산 확대 여지가 작다.

〈그림 14〉 EU의 원유 생산 추이(2012~2014년 평균을 100으로 환산한 지수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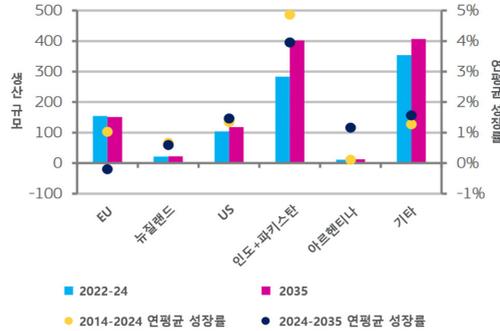
### □ EU의 지속가능한 낙농 생산 전환, 세계 원유 생산 지속 증가 전망

EU 낙농 부문은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에 따른 전환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기농, 품질 인증 등 고부가가치 생산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질소 배출 저감 등 강화된 환경 규제는 낙농우 사육 두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낙농우 두수는 기준 대비 약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당 생산량은 연평균 0.9% 증가하겠지만, 이는 과거 10년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동물복지 향상 등 사회적 요인이 유량 증가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회원국 간 생산성 격차 해소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전 세계 원유 생산은 연평균 1.8%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기존 수출국보다는 인도·파키스탄 등 자급률 제고를 추진하는 소비국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자국 생산 확대에 나서겠지만, 대부분 내수용으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생산량 중 약 8%만이 국제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아시아의 낙농 소비는 증가하겠지만, 중국은 자국 생산 확대, 경제 성장 둔화, 고령화 등으로 수입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5〉 주요 국가의 원유 생산 규모 및 연평균 성장률

단위: 백만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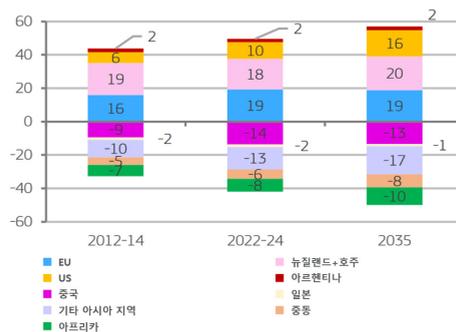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3.

### □ EU, 세계 낙농 수출 시장에서의 위상 유지

글로벌 낙농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2024~2035년 동안 연평균 1.3% 증가에 그쳐 과거 1.7%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EU와 뉴질랜드는 2035년까지 세계 낙농 수출의 약 46%를 차지하며 주도적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까지 포함하면 세 나라가 전체 수출의 65%를 담당하게 된다. EU는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전환하면서 수출 물량은 연평균 0.2% 감소하겠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연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뉴질랜드는 환경 부담과 생산 시스템 한계로 원유 생산 확대 여력이 제한적이며, 반면 미국은 느슨한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수출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 내 수출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그림 16〉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원유 초과·부족량

단위: 원유 환산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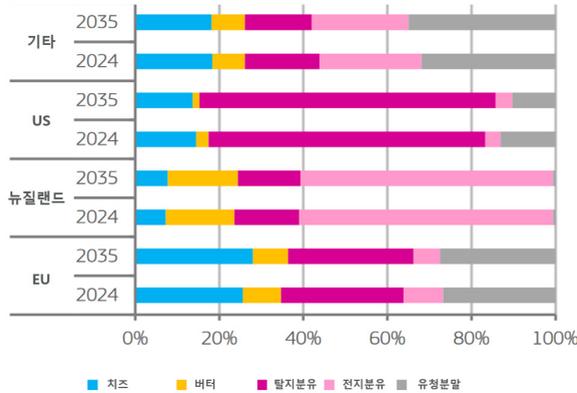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3.

□ 세계 수입시장 다변화가 EU 무역에 긍정적 영향

중국의 분유 수입은 자국 생산 확대와 수요 구조 변화로 둔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북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의 강한 수요가 이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유류는 글로벌 수입 증가세 둔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치즈, 유청, 버터는 각각 연평균 1.3%, 1.4%, 0.7%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EU 역시 수출 전략을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주요 유제품 수출국의 품목별 무역 점유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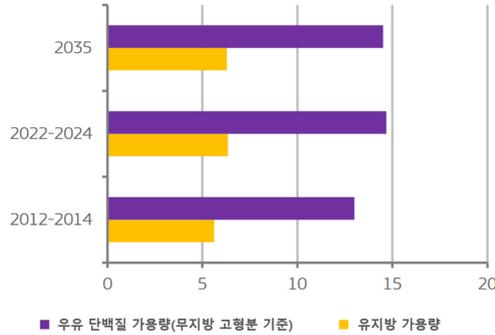
3.2. 유제품(Dairy Products)

□ 향후 제한적인 우유 고형분 공급 전망

EU 원유의 고형분 함량(지방 및 단백질)은 향후 사양 관리 개선과 고지방·고단백 품종의 도입 확대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등 주요 생산국의 추가 개선 여지가 제한되면서 증가 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과 열 스트레스 등 환경 요인도 초지 환경과 동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24~2035년 사이 우유 지방과 무지방 고형분 공급은 각각 약 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8〉 EU 내 유지방 및 유단백 가용량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4.

### □ 치즈 및 유청이 고형분 자원의 점유율 확대

EU 낙농 가공 부문은 고형분 자원 감소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 전략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즈와 유청 중심의 생산 비중이 확대되어, 2035년에는 전체 원유의 약 46%가 해당 제품군으로 유입될 전망이다(2022~2024년 평균 44% 대비 증가). 반면, 버터 생산은 연평균 0.3% 증가에 그치고,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SMP)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 WMP)는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연평균 0.9% 감소할 전망이며, 음용유 소비의 장기적 감소로 신선 유제품(Fresh Dairy Product, FDP) 생산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림 19〉 2024~2035년 EU의 주요 유제품 생산 변화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원유 환산 기준 백만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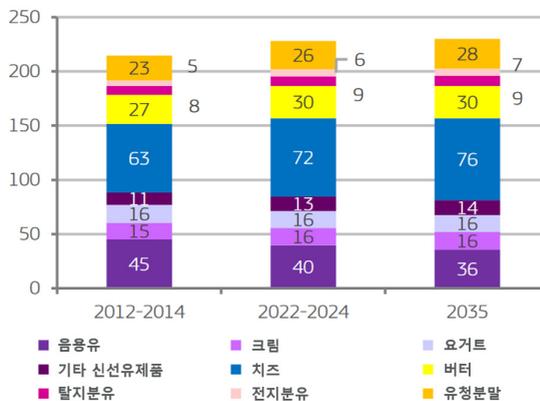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4.

### □ EU 내 견고한 유제품 소비 수요의 유지

EU는 강한 내수 수요를 바탕으로 유제품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주요 유제품 품목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2kg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당분이 적은 제품이나 유당불내증 대응 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타민·미네랄 강화 등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성 대체제품 시장은 성장 중이지만, 전통 유제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0〉 EU의 1인당 총 유제품 및 주요 품목 소비량

단위: 원유 환산 기준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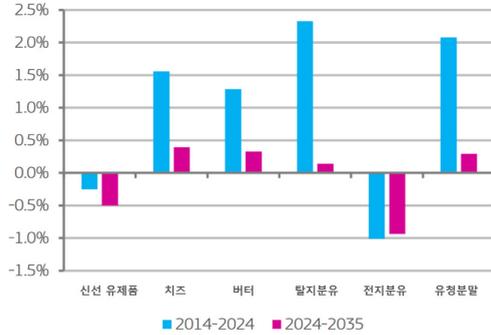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4.

### □ 치즈 시장의 지속적 성장 전망

EU의 치즈 생산은 내수와 수출 수요 확대에 힘입어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수출은 2035년까지 연평균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EU 내 치즈 소비는 연평균 0.4% 증가 여력을 보인다. 신선 유제품(FDP) 부문에서는 우유 소비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요거트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크림 소비는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FDP 소비는 연평균 0.5%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수요 둔화로 수출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림 21> EU 주요 유제품 사용량의 연간 변화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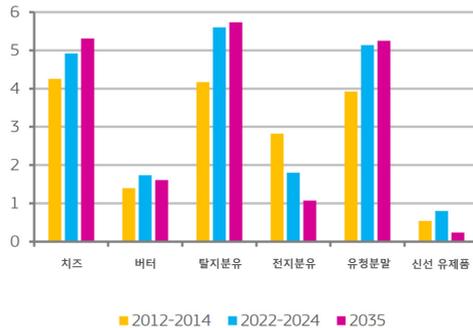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5.

### □ EU 유청 유래 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글로벌 수요 증가와 기능성 제품 확대에 따라 EU의 유청 생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0.3%, 수출은 0.2% 증가할 전망이다. 탈지분유(SMP)는 경쟁 심화에도 생산과 수출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소폭 증가 가능성도 있다. 국내 소비는 연평균 0.4% 증가하겠지만, 과거 1.1% 증가율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지분유(WMP)는 수요 감소와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생산은 연평균 0.9%, 수출은 5%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식품 가공용 내수 수요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EU의 낙농제품 수출 물량은 2035년까지 연평균 0.2% 감소하겠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와 글로벌 가격 강세에 힘입어 수출액은 연평균 0.4%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2> EU의 주요 유제품 수출량

단위: 원유 환산 기준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5.

## 4. 축산물(Meat Products)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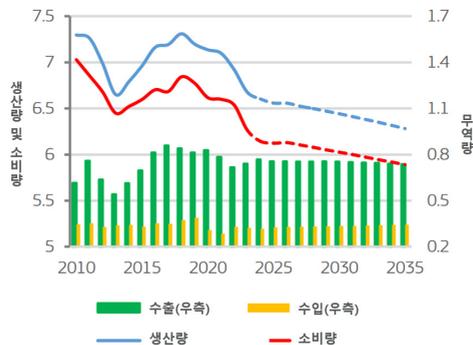
### 4.1.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Beef and veal)

#### □ 쇠고기 생산과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전망

EU의 쇠고기 생산은 구조적 감소세를 이어가며, 2035년까지 2022~2024년 평균 대비 6.7% 감소한 6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암소 사육 두수는 290만 마리(9.6%) 감소하고, 낙농우는 점진적으로, 육우는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규제 강화로 인해 950만 마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77만 마리, 7.5% 감소). 일부 국가에서는 CAP 하 연계소득지급, 생태환경 프로그램, 가격 개선 등이 감소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뒤집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축체중은 사육 관리 개선과 육우 품종 개량으로 증가하겠지만, 유기농·저밀도 사육 전환이 이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쇠고기 소비는 공급 부족, 고가격, 지속가능성 인식 등으로 2024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1인당 소비량은 연간 9.8kg에서 2035년 9.2kg로 약 5.9% 줄어들 전망이다.

〈그림 23〉 EU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급 균형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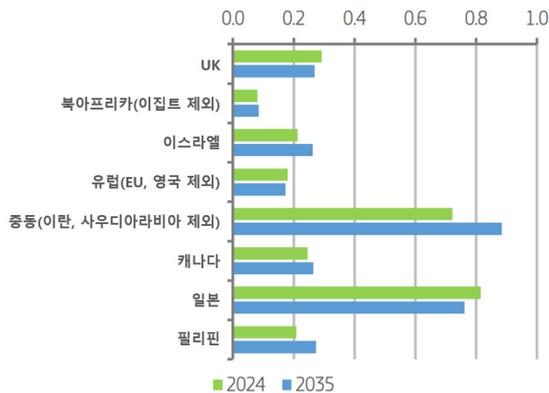
#### □ 생축 수출 감소를 상쇄할 육류 수출 확대 전망

EU의 생축 수출은 동물복지 우려, 공급 축소, 국제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2035년까지 연평균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육류 수출은 생축 수출의 일부 대체와 교

역국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연평균 0.9%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영국, 튀르키예, 발칸반도, 중동, 북아프리카 등이다. 쇠고기 수입은 2024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국내 공급 감소에도 특정 부위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2035년까지 연평균 0.6% 증가해 34만 3천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EU의 주요 교역국 대상 쇠고기 수입량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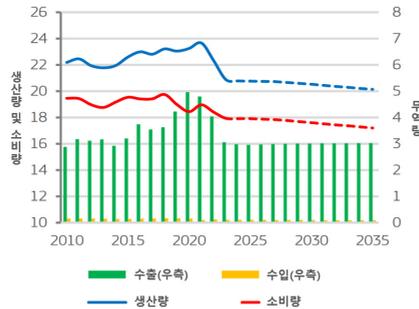
## 4.2. 돼지고기(Pigmeat)

### □ 돼지고기 생산 감소세 지속 전망

EU의 집약적 양돈 방식은 향후 환경 및 동물복지 측면에서 사회적 비판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된다. 일부 회원국의 규제 강화와 수출 기회 축소도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해, EU의 식용 돼지고기 생산은 2022~2024년 평균 대비 2035년까지 연평균 0.5% 감소하여 약 120만 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측면에서도 돼지고기는 환경 및 건강 문제로 소비자 선호가 약화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함량 역시 일부 소비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0.4% 감소하여 2035년에는 30kg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준 기간 대비 약 5% 감소한 수치이다.

〈그림 25〉 EU의 돼지고기 수급 균형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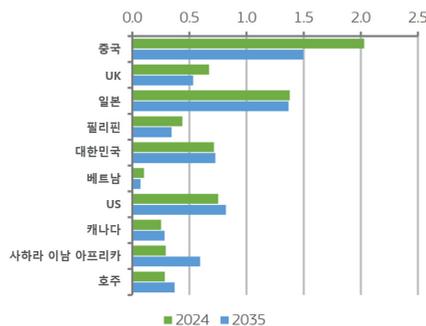
□ 아시아 지역 생산 회복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 감소 전망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생산 회복은 ASF 지속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수입 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호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스위스, 기타 아시아 지역의 수입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향후 EU 돼지고기의 최대 단일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으나, 이는 자국 내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상대적 변화로 해석된다. EU 전체 수출은 2022~2024년 평균과 비교해 2035년까지 연평균 1% 감소하며, 수출량은 약 33만 8천 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4년부터의 기준으로 보면 수출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수입은 영국의 자국 생산 중심 전환과 대체 수입처 부재로 인해, 2035년까지 연평균 2.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EU의 주요 교역국 대상 돼지고기 수입량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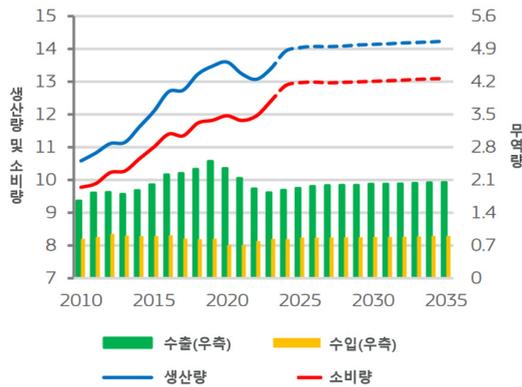
### 4.3. 가금육(Poultry meat)

#### □ 가금류 생산 및 소비의 지속적 증가 전망

2024년 EU의 가금류 생산은 안정적인 수요와 생산자에게 유리한 사료비·산출 가격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소비 패턴 변화와 수출 기회 확대에 따라 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35년까지 2022~2024년 평균 대비 총 77만 톤, 연평균 0.5%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환경 규제 강화와 저집약적 사육 방식으로의 전환은 일부 지역에서 생산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비계절적·지속적 발생은 특히 방사 사육 시스템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1인당 가금류 소비량은 연평균 0.5% 증가하여 2024년 24.2kg에서 2035년 25.8kg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 EU의 가금류 수급 균형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9.

#### □ EU의 가금류 무역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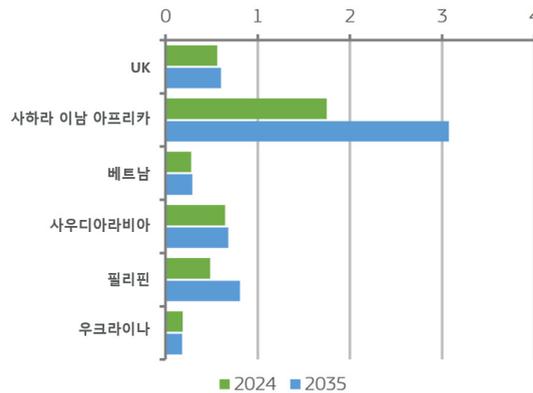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EU의 가금류 수출은 2035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해 20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을 비롯한 기존 주요 시장과 함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의 수요 증가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외식 산업과 식품 가공 부문의 수요 증가로 가금류 수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우크라이나와의 무관세·무쿼터 협정은 수입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가금류 수입은 2035년까지 연평균 0.9% 증가해 약 90만 4천 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28〉 EU의 주요 교역국 대상 가금류 수입량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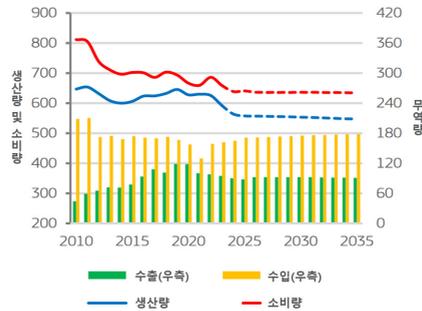
#### 4.4. 양고기 및 염소고기(Sheep and goat meat)

##### □ 생산은 감소하나 소비는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

EU의 양고기 및 염소고기 생산은 2035년까지 연평균 0.7% 감소하여 54만 7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EU-14 지역의 생산 감소(연평균 -1.3%)에 기인하며, 반면 EU-13 지역은 소폭 증가(연평균 +0.9%)가 예상된다.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축 질병의 발생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요인으로 남아 있다. 2010~2024년 동안 EU의 양·염소 사육 두수는 약 950만 마리(12%) 감소했으며, 이 같은 구조적 축소는 연계소득지급 유지와 비교적 안정된 가격 여건에 의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생산은 향후에도 특정 국가에 집중될 전망으로, 2024년 기준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아일랜드, 루마니아가 전체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35년까지 1.2kg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교 및 문화적 전통에 기반한 소비 습관과 가격 민감도가 낮은 특성, 계절 수요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림 29〉 EU의 양고기 및 염소고기 수급 균형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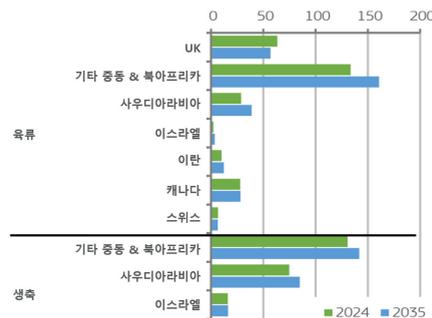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40.

### □ 수입 증가 전망 속 중동 수출은 지속 전망

EU의 생체 가축 수출은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와 일부 수출국의 재정적 리스크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35년까지 4만 5천 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2022~2024년 평균 대비 18.7% 감소). 반면, 양·염소고기 수출은 중동 지역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같은 기간 대비 17.8% 증가해 4만 5천 7백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 대상국과 지역 구성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영국·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영향으로 EU의 대영국 수출은 감소하고, 역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EU산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은 뉴질랜드산 양고기의 수입 확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EU의 전체 양·염소고기 수입은 2035년까지 2022~2024년 평균 대비 10.1% 증가한 17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30〉 EU의 주요 교역국 대상 양고기 수입량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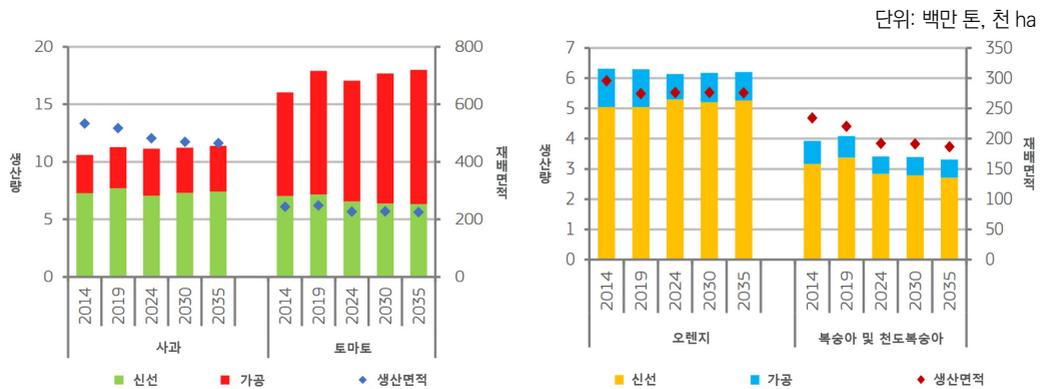
## 5. 특용 작물(Specialised Crops) 전망

### 5.1. 과일·채소(Fruit and Vegetables)

#### □ EU 신선 과일·채소 생산의 상이한 변화 경향

2035년까지 신선 소비용 토마토와 복숭아·천도복숭아의 생산은 감소할 전망이다. 토마토의 경우, 겨울철 생산 축소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소형 품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숭아·천도복숭아는 신선 및 가공용 모두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사과와 오렌지는 생산 단수 증가로 생산이 1,140만 톤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이 중 약 740만 톤은 신선 소비용, 400만 톤은 가공용으로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고수확 품종 도입과 재배 기술 개선이 생산성 향상의 핵심 배경이다. 가공용 토마토 생산은 가공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1,160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생산 구조는 고농축 제품에서 통조림, 파스타, 유기농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렌지 생산은 신선 소비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 EU의 사과, 토마토, 오렌지, 복숭아·천도복숭아 생산량 및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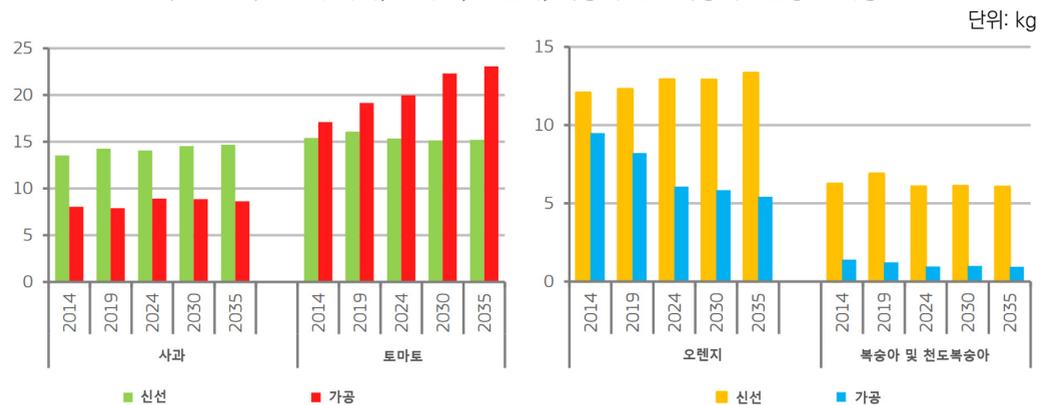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46.

## □ 신선 과일과 가공 토마토의 소비 증가 전망

EU의 신선 과일·채소 소비는 건강 인식 확산과 정책적 소비 장려에 힘입어 안정적이거나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오렌지가 연평균 0.3% 증가해 1인당 13.3kg, 사과는 연평균 0.4% 증가해 14.7kg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복숭아·천도복숭아는 6.1kg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신선 토마토 소비는 전체적으로 15.2kg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일반 크기 토마토 소비는 감소하겠지만, 소형 토마토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 과일 소비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렌지 주스는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공 사과는 연평균 0.3%, 복숭아 및 천도복숭아 가공품은 0.2%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가공 토마토 소비는 연평균 1.2% 증가해 1인당 23kg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토마토 페이스트 및 소스류 수요 증가와 같은 가공식품 소비 확대 흐름에 기인한다.

〈그림 32〉 EU의 사과, 토마토, 오렌지, 복숭아·천도복숭아 1인당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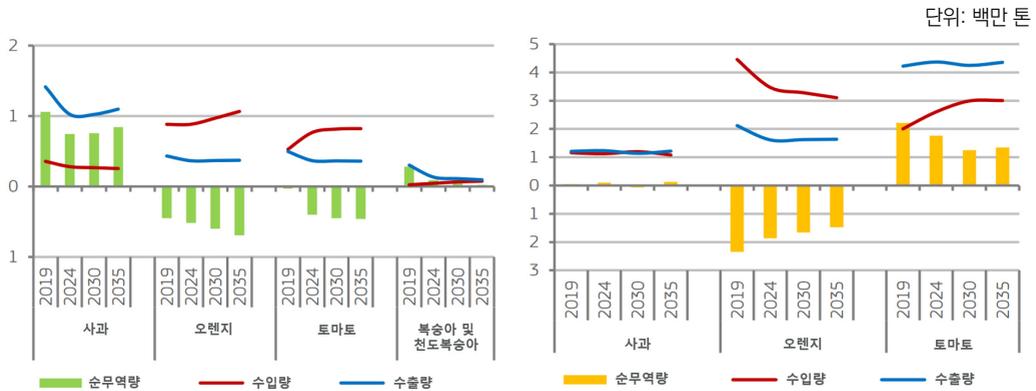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p.46-47.

## □ 사과를 제외한 신선 과일·채소 수입 증가 및 수출 감소 전망

EU의 신선 사과 수출은 고품질 신제품 도입에 힘입어 연평균 0.6% 증가해 2035년에는 11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신선 토마토와 복숭아·천도복숭아 수출은 각각 연평균 0.2%, 2.9% 감소가 예상되며, 오렌지 수출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선

사과 수입은 역내 생산 확대로 연평균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타 신선 과일·채소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토마토 수입은 연평균 0.6% 증가하며, 모로코가 주요 공급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는 비수확기 수요를 중심으로 연평균 1.5% 증가하고, 복숭아·천도복숭아는 수입 규모는 작지만 연평균 5%의 증가세가 전망된다. 가공 토마토 수출은 견조한 세계 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수입은 주요 경쟁국의 생산 확대에 따라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 오렌지와 복숭아·천도복숭아 수출은 각각 연평균 2.3%,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 EU의 신선 및 가공 과채류 무역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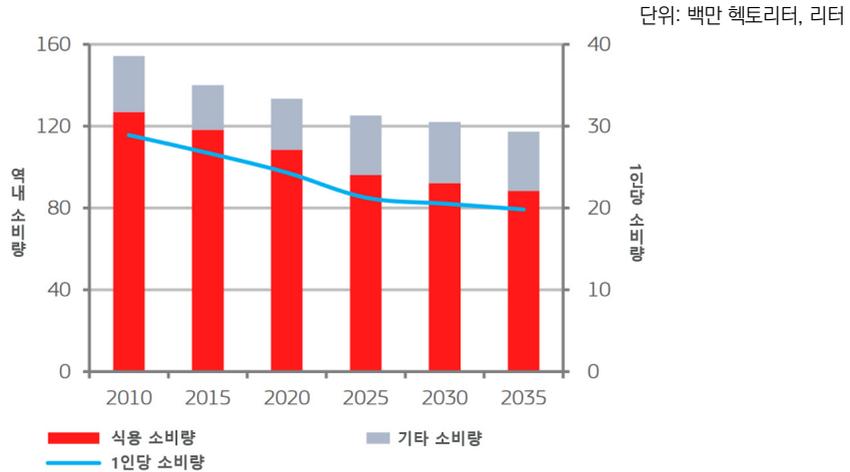
## 5.2. 와인(Wine)

### □ EU 와인 소비의 지속적 감소 전망

EU의 와인 소비는 건강에 대한 우려, 젊은 세대의 음주 기피, 기타 음료 선호 확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생활습관과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 전통적 와인 소비국에서는 소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체코, 폴란드, 스웨덴 등 비교적 최근에 와인 소비가 확산된 국가에서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선호도 변화하고 있다. 레드와인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보다 가볍고 신선한 스타일의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수요는 증가 추

세에 있으며, 비알코올 와인과 와인 기반 음료의 판매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소비 증 비중은 낮다.

〈그림 34〉 EU의 역대 와인 소비량 및 1인당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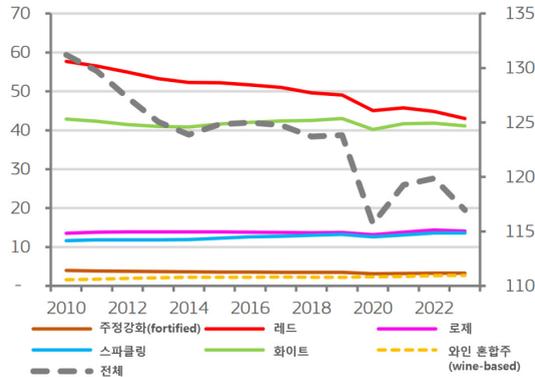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48.

## □ 소비 감소에 연동되는 EU 와인 생산 추세

1인당 와인 소비는 2020~2024년 평균 22.3리터에서 2035년까지 연평균 약 1% 감소하여 19.8리터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증류 및 가공용 와인 소비는 약 3,000만 헥토리터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와인 생산량의 약 66%는 인체 소비용, 20%는 수출에 사용되고 있으나,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도 유사한 소비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는 EU 전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EU의 와인 생산량은 2035년까지 연평균 0.7% 줄어들며 약 1억 4천만 헥토리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감소는 주로 재배면적 축소에 기인하며, 기후 조건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림 35〉 EU의 와인 종류별 판매량

단위: 백만 헥토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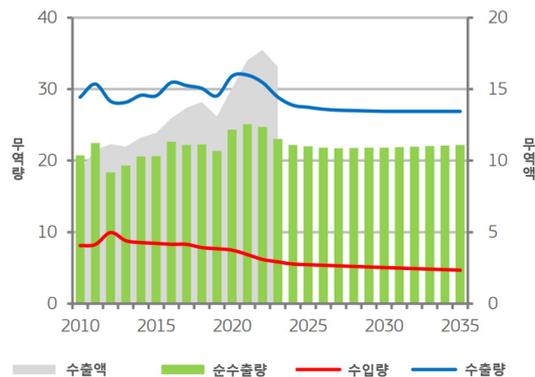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48.

□ 축소되는 EU 와인 무역 규모

EU의 와인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위축 이후 2020/21, 2021/22 마케팅 연도에 반등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 및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재고 누적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전망 기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U 내 와인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2035년까지 EU의 와인 수출은 연평균 1.2%, 수입은 2.7%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36〉 EU의 와인 무역량 및 무역액

단위: 백만 헥토리터, 10억 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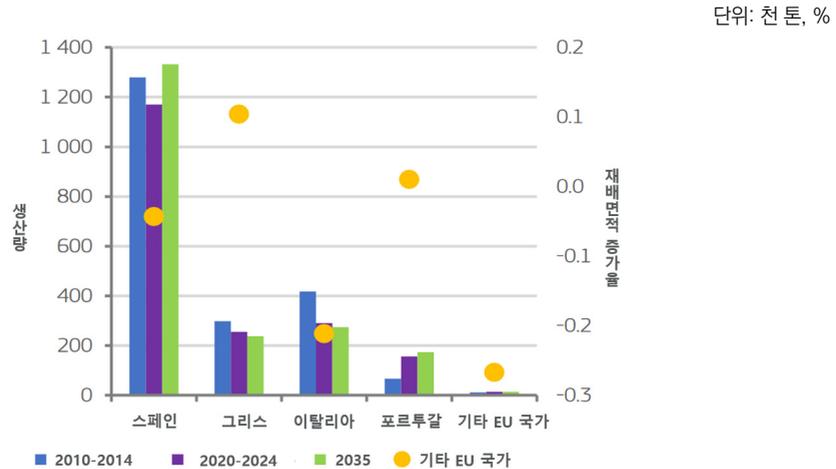
### 5.3. 올리브유(Olive oil)

#### □ 생산 여건의 도전과 국가별 생산성 차별화

EU 올리브유 부문은 2022/23~2023/24 두 마케팅 연도에 걸쳐 생산 감소를 겪었으며, 특히 이베리아 반도 재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비정상적인 기후와 물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기존 전통 경작지를 넘어 새로운 지역에서 고밀도·기계화 중심의 재배로 전환하는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전환이 수익성 회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나, 성과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향상에 따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연평균 생산 증가율은 각각 1.2%와 1.0%로 전망되며, 생산 단수는 연평균 0.7%와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배 농가는 질병(자일렐라 파스티도사(*Xylella fastidiosa*),<sup>7)</sup> 올리브혹파리 등), 노동력 부족,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올리브유 생산량 및 올리브유용 재배면적의 연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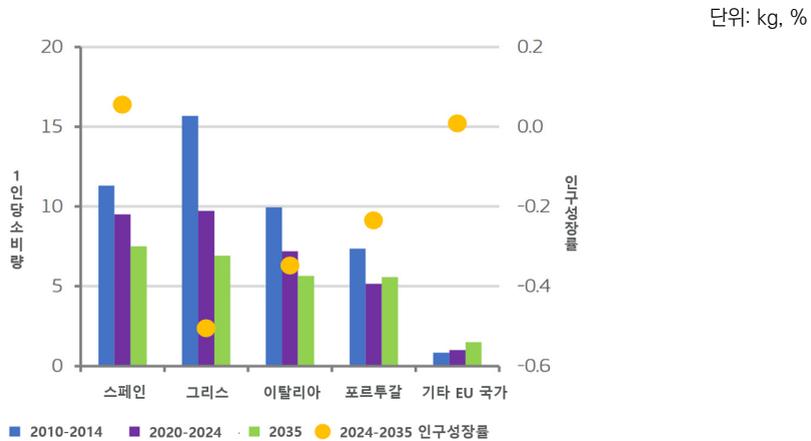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49.

7) 포도, 올리브, 감귤, 복숭아,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작물의 물관(xylem) 내부에 침입해 수분 운송을 방해하는 세균성 병원체.

### □ 소비 양극화와 지역별 수요 변화

EU 내 올리브유 소비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와 높은 가격, 대체 식물성 기름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기인한다. 특히 전통 소비국인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는 연평균 2~3% 수준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포르투갈은 가용 물량 증가에 따라 1인당 소비가 증가해 2035년에는 5.6kg에 이를 전망이다. 소비 기반이 아직 취약한 국가들에서는 2035년까지 연평균 3.7%의 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EU 전체적으로는 국가 간 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 1인당 올리브유 소비량 및 연간 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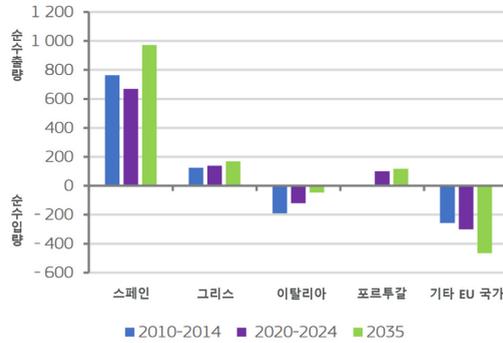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49.

### □ 순수출국 지위 유지와 무역 구조의 변화

EU는 구조적인 소비 감소와 일부 국가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순수출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35년에는 순수출량이 약 7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의 순수출은 연평균 3.5%, 그리스는 1.8%, 포르투갈은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반대로 이탈리아는 연평균 8.2%의 순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EU 내 기타 국가들은 연평균 4%의 순수입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튀니지는 기존 무역협정을 활용해 대EU 수출을 확대 중이며, 글로벌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에 대응해 제품 차별화 전략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39〉 올리브유 순무역 동향

단위: 천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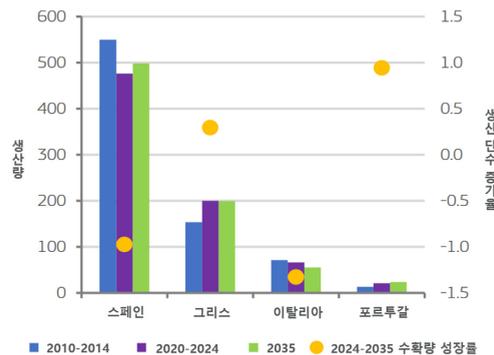
#### 5.4. 식용 올리브(Table olives)

##### □ 기후 및 물 부족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

EU 식용 올리브 생산은 기후 악화와 물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생산성 유지를 위해 과원 현대화와 물 관리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 포르투갈은 수자원 정책을 통해 생산 단수 증가에 성공한 대표 사례다. 국가별 생산 전망은 상이하다. 2020~2024년 대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연평균 각각 0.4%, 1.1%의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재배면적 감소(-0.3%)와 생산 단수 저하(특히 이탈리아 -1.3%)로 생산 감소가 전망된다. 2035년 예상 생산량은 그리스 약 20만 톤, 이탈리아 약 5.6만 톤이다.

〈그림 40〉 식용 올리브 생산량 및 연간 생산 단수 변화율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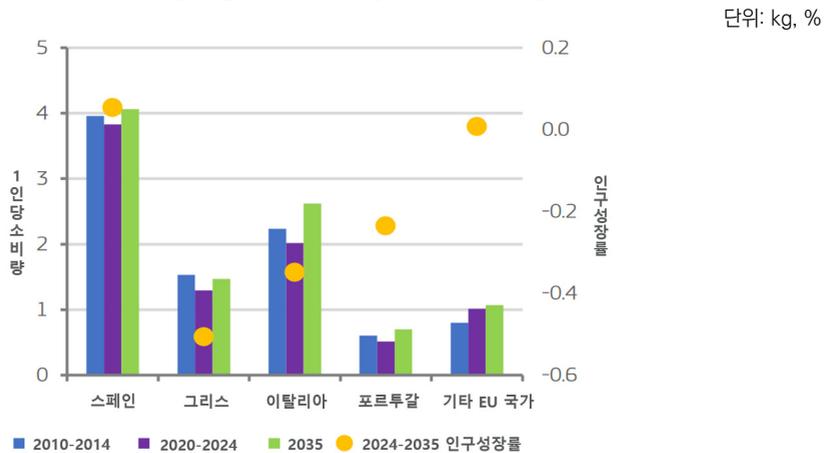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50.

### □ EU 내 식용 올리브 소비 증가

향후 10년간 EU의 1인당 식용 올리브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스페인은 연평균 0.5% 증가해 2035년 소비량이 약 4.1kg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1.2~2.8%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기타 회원국도 증가세를 보이나, 속도는 제한적이다. 이는 건강식에 대한 관심과 식습관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림 41〉 1인당 식용 올리브 소비량 및 연간 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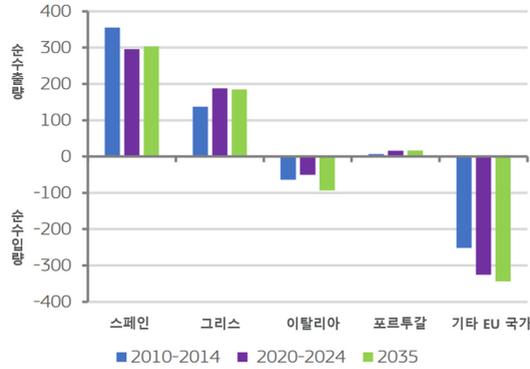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50.

### □ 순수출국 지위 유지 전망

2035년까지 EU는 식용 올리브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연평균 0.2~0.3%의 순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그리스는 소폭 감소(-0.1%)하나 순수출국 지위는 유지된다. 이탈리아는 수입 증가로 2035년 순수입 규모가 약 9.4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타 회원국도 순수입이 증가하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EU는 세계 주요 수출국이자 동시에 수입국 역할을 병행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동비 상승, 무역장벽 등 시장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림 42〉 식용 올리브 순무역 동향

단위: 천 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p.50.

## 6. 결론 및 시사점

###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

EU의 중장기 농업 전망은 이상기후, 자원 제약, 지속가능성 요구에 따른 농업 구조 재편과 기술 기반의 생산성 개선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밀농업, 재생농업, 저투입 집약형 경작 기술은 생산 안정성과 환경 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은 이러한 경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농업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농업으로의 전환 압력을 받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식량안보 확립을 위해 기후 적응형 농업 시스템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농업정보 기반의 정밀영농 확산, 저탄소 농업 기술 실증 및 확산, 기후탄력적 품종 육성, 농지의 다기능성 제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지역별 기후 위험도를 고려한 농정 수립과 재해 위험 농가에 대한 탄력적 정책 지원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전략 작물 및 식량 자급 기반 재정비

EU는 자급률 제고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대두·두류 등 단백질 작물의 재배 확대 및 수입 대체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GM-free, 지속가능 생산 기반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지종자와 곡물의 자급률도 향상시키기 위한 재배 면적 관리와 품종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곡물 및 단백질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수출국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전략 작물 육성을 통해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농지 운영과 연계된 전략작물 직불제 고도화, 수입대체형 품종개발 및 생산지원 확대, 계약재배를 통한 판로 안정화 등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식량자급률 지표 재설계와 함께 품목별 자급목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수단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 고부가가치화 및 품목 전환 대응

EU 농업은 생산량 중심에서 부가가치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낙농, 가금, 과수, 와인 등 주요 품목군에서는 기능성, 프리미엄화, 소비자 맞춤형 상품 구성이 강화되고 있다. 유제품 부문은 치즈와 유청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수출 구조로 재편되었으며, 가금류는 소비 증가에 따라 친환경·동물복지 기반의 차별화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와인·과일 등 특용작물 부문도 소비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레드와인에서 스파클링/비알코올 전환, 대과종에서 소형 품종 전환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농업 또한 정체된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령화 및 소비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구조 개편 및 부가가치 창출 전략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프리미엄 유제품 브랜드 육성, 가금류 중심의 지속가능 축산모델 확대, 과일 품종 개량 및 기능성 강화, 비알코올 음료 및 발효식품 수출 육성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아울러, 가공·외식·유통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전략과 연계하여 농산물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농식품 무역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EU의 농업 무역 전략은 내수 감소와 글로벌 수요 정체 속에서도 고부가 수출 확대, 수입 구조 재편,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연료, 식물성 단백질, 기능성 제품 등 미래 수요 확장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조정하고 있으며, 팜

유 등 지속가능성 이슈가 있는 품목의 수입을 감축하고,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수입 다변화를 위해 수출 유망 품목의 기능성·지속가능성 인증 강화, 수출전략작물 중심의 생산기반 확충, FTA 및 무역협정 연계한 농식품 마케팅 체계 고도화, 바이오에너지 및 단백질 공급자원 관련 WTO 협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ESG 기반 농산물 수출 인증체계 마련, 국가별 수입규제 분석 및 선제적 대응, 농산물 가공·포장 경쟁력 강화 등도 수출 확장에 필수적인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24. EU Agricultural Outlook 2024-2035.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21.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2023. Directive (EU) 2023/2413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recast).

## ■ 참고사이트

European Council.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6/17/nature-restoration-law-council-gives-final-green-light/?utm\\_source=chatgpt.com](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6/17/nature-restoration-law-council-gives-final-green-light/?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6.18).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https://www.efsa.europa.eu/en/press/news/180228>(검색일: 2025.6.18).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Arable\\_land](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Arable_land)(검색일: 2025.6.26).

